

11/22(화) 시편(4 권) 묵상 3

시편 92:1-15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2편은 표제에서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특별한 절기나 특별한 날에 모여서 제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히 안식일은 밤낮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날이었습니다.

감사와 찬양

본문 1-3절은 함께 연결되어서 '좋으니이다'로 시작합니다. 이는 무엇이 좋다는 말일까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다'는 말인지 두 가지 의견이 있지만 후자가 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움이 좋으니이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4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첫째로 주께서 행하신 일로 인함입니다. 둘째로 주의 손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에 나타난 행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사 2:7,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시 19: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데도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과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깊은 생각

시인은 5절에서부터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인간의 무지'에 대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5-6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1-4절까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분위기가 갑자기 어두운 분위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 때문입니다. 본문 6절의 '어리석다'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지능이 모자라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도 그들이 살던 동방 지역에서 당대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혜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깨닫지 못한 것도 욥의 세 친구들과 비슷합니다(7절상, "**악인들은 풀 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즉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그들의 행위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같은 영적 고민은 시 73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시 73:2-5,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행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으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는 마치 어제 시 91편에서

약속한 말씀과도 상반되는 내용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시 91:14-15,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나 시편 92편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우리의 무지한 지혜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욥기의 친구들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이 세상의 창조물과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셨지만 우리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는 신적 지혜의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또 우리의 무한한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해서 주님을 부정하거나 그 분의 역사를 의심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히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 모두 처음부터 하나님과 그가 말씀하신 것을 다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 11:7절에 나오는 노아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는 홍수가 일어나기 약 100년 전부터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지역 마을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을 조롱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어리석고 한심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부족한 지혜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그 일에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결국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히 11: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종종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조차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깊은 생각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과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상주시는 이를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만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우리의 손과 감각에 느껴질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며, 증거조차 느껴지지 않아서 의심이 들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미국을 위한 기도:** 미국의 위정자들과 정치, 경제, 외교,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를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미국의 교회들과 신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관리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오만 김데이비드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